

2025회계연도
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
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목 차

I. 심사경과	1
II. 전문위원 검토보고	2
III. 대체토론 요지	3
IV. 심사결과	3
V. 부대의견	4

202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6. 5. 29.

2. 회부일자 : 2026. 7. 1.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439회국회(정기회)

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(2026. 9. 8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○ 제439회국회(정기회)

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(2026. 9. 18.)

상정, 의결(원안의결)

○ 제439회국회(정기회)

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(2026. 9. 22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원안의결)

Ⅱ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지민)

□ ‘KBS 경영지표’(p.19)와 관련하여,

수익성·성장성·생산성·안정성 등 경영지표 전반이 전년 대비 악화되었고, 당기순손실이 4년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, 그 규모도 전년 대비 11.3% 확대되었습니다.

매출액과 자산의 지속적인 감소는 KBS의 미래 잠재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, 자기자본 축소와 유동성 악화는 위기 대응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므로,

부채비율의 과도한 상승 억제 및 비용 절감 자구 노력과 함께,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.

□ ‘방송광고수입’(p.39)과 관련하여,

KBS의 2025년 방송광고 수입은 1,375억원으로 예산 대비 76%에 불과하고, 전년 대비 19% 감소하였습니다.

방송광고수입의 감소는 OTT 이용률 확대 등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시장 침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, 타 지상파방송사 대비 KBS의 콘텐츠 경쟁력 약화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점 등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KBS는 자사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, 최근 방송광고 규제완화 기조에 맞추어 방송광고수입 회복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□ ‘장애인방송(수어방송)’(p.60)과 관련하여,

KBS는 「방송법」에 따라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, 1TV채널과 달리 2TV채널은 수어방송 편성비율 7%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방송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과 보편적 시청권을 선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,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점을 고려할 때, KBS가 2TV채널의 수어방송 편성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.

Ⅲ. 대체토론 요지

생략

Ⅳ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V. 부대의견(12건)

- 한국방송공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재무여건 악화가 필수적인 방송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손실이 지속되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, 장부가액이 해당 출자기관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정원과 현원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, 조직 기능별 인력 수요를 재분석하고, 그에 따라 정원 규모의 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를 검토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방송국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 장비의 노후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중장기 투자·교체계획을 마련하고,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AI·자동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, 재난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최종

검증체계를 강화한다.

- 한국방송공사는 AM 송신소 매각이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
이므로, 타 방송사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AM 송신소 폐소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
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예산 대비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자의적인
예산 조정을 지양한다.
-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와 인건비 절감에만 의존하여 적자를 보전
하는 관행을 시정한다.